

2000만 불자 여러분의 뜻에 따라 **성종사** 와 **(주)비엔비기업**이  
**전자종소리+전자시계+오디오+마이크+청동범종(25관)**  
 이 모든 기능을 하나로 묶었습니다.

## 『21세기 불가의 신개념 전자종틀 가릉빈가』



- ※ **법당에 가릉빈가를 설치하시면...**
- 법문을 하실 경우 종 밑 스피커에서 울려나오는 소리가 종속을 통하여 다시 울려퍼지므로 장엄한 법문을 불자님들께서 들으실 수 있습니다.
  - 가릉빈가에 마이크 및 스피커(3개)를 설치 할 수 있어 따로 법당에 마이크 시설을 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 독경 및 법문 테이프, 명상가요 등을 들을 수 있는 기능이 있으므로 따로 오디오를 마련하실 필요가 없으며, 전자시계가 부착 되었으므로 정확한 시간을 알 수 있습니다.
  - 종을 제외한 종틀만 구입이 가능하며, 기존에 설치되어 있는 종틀 교환도 가능합니다.
  - 원음에 가까운 종소리를 가릉빈가를 통하여 들을 수 있습니다. 특히 실내에서의 종소리는 실물의 종소리와 같은 생생한 음향으로 들을 수 있습니다.
  - 전자음향종 및 심계 종을 결합한 최 첨단 제품으로 법회시에도 일반종과 같이 사용할 수 있습니다.

- **제 품 명 :** 가릉빈가
- **제품특성 :** 국내 최초로 MP3를 내장한 전자종 시계로 100여 M 정도에서도 웅장한 종소리 및 녹음한 음원(독경, 명상음악 외) 등을 45분 동안 맑고 웅장하게 들을 수 있으며, 마이크(스피커 3대) 기능이 탑재되어 있어 대법회 등에서도 사용 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
- **제품기능 :** 출력(정격출력 150W 이상, 최대출력 250W 이상) 리모트 컨트롤 사용(시계변경, 알람시간조절, 임의적 작동, 볼륨 조절, 기타), 디지털 시계 기능, 스피커 크기 - 6INCH 3개, MP3장악 - 45분(종소리 20초, 독경 40여분 장악), 오토리버스 기능(타종 횡수 조절 가능) - 알람기능 (3번 작동 가능. 예: 오전, 오후, 저녁)  
 전원부 : DC24V (3A-5A 10), 마이크 엠프 기능
- **사용방법 :** 리모콘으로 작동이 이루어져 모든 분들이 쉽게 사용 할 수 있도록 만들어져 있습니다.
- **소비자가 :** 5,900,000원 (종25관+종틀+스피커 3개+마이크+리모콘+기타+일체 포함)
- **중재업체 :** 성종사
- **전자 종틀제작업체 :** (주)비엔비기업
- **문의처 :** 032-772-5451 / 02-733-6141

### 인간문화재 원광식선생의 작품을 느껴보세요



용무늬종경 15,000원	조선의종 180,000원	일반보급형종 100,000원	전자 한국의종 297,000원	전자시계종 160,000원

전국지사 및 판매점, 판매사인 모집 1. 초도지급 300만원 개설 가능 2. 무점포 창업가능 3. 불가에 뜻을 가지고 있는분 우대 [www.bellkorean.com](http://www.bellkorean.com)



# 현대불교

제 467호  
**부록**  
 구독신청: 737-0090

[www.buddhanews.com](http://www.buddhanews.com)

불기 2548년(서기 2004년) 3월 31일 수요일(음력2월11일)



## 선의 황금시대 활짝 열렸다

법회·논강 이어져... 수행불교 새물결 전국 출렁  
 선원장 초청법회 매주 3천여명 운집 '열기'

은 사회가 수행과 명상 열기로 뜨겁다. 관련 서적이 베스트 셀러에 오르는가 하면 공무원, 기업체 임직원, 대학생들의 교육 프로그램에도 참선, 위빠사나 등 수행 프로그램이 단골로 오른다. 각박해진 도심 생활에 염증을 느낀 이들의 자연과 산사에 대한 동경 탓일까. 한국 전통의 간화선에 대한 관심도 어느 때보다 높다. 이런 흐름에 호응하듯 선종을 표방하는 조계종도 '불자 수행프로그램 현황 조사보고서'를 발간하고 '간화선 수행 지침서' 편찬에 박차를 가하는 한편 각 사찰의 참선 실수(實修) 프로그램을 연달아 개설하고 있다. 바야흐로 이론과 실천을 함께하는 '수

행불교'가 개인적 복을 바라는 '기복불교'와 '지식불교'를 넘어서 한국불교의 세호됨으로 확산되고 있다. 이 같은 수행에 대한 높은 관심은 자연스럽게 대중적인 참선법회 붐으로 이어지고 있다. 전국 사찰에선 수백 명에서 수천 명이 동참한 가운데 고승 및 선사 초청법회와 논강이 잇따라 열려, 간화선 수행종토에 새 바람이 불고 있다. 특히 조계사-현대불교신문 공동주최 서울 조계사(2월15일-5월9일), 도선사(3

월2일-4월13일), 봉은사(2월21일-4월10일), 보문사(3월21일-27일), 부산 해원정사(2월24일-3월14일), 감로사(2월29일-3월4일), 소림사(3월5일-11일), 장원정사(2월27일-3월5일) 등이 '고승 및 선원장 초청법회'나 '논강'을 펼쳐 출·재가 수행자들의 오랜 갈증을 풀어 주고 있는 셈이다. 특히 조계사-현대불교신문 공동주최 2월 15일부터 5월 9일까지 3개월간

매주 일요일(오전 10시) 조계사에서 열리는 '간화선 중흥을 위한 전국 선원장 초청대법회'에는 매년 3천여 불자들이 대동원과 앞마당, 극락전을 가득 메울 정도로 높은 호응을 얻고 있다. 이번 선원장 초청법회에 대한 엄청난 반응은 조계종 포교원이 출초에 발표한 '신도 수행 실태에 관한 설문조사'에서 응답자의 65.1%가 가장 지도받고 싶은 수행법으로 참선을 든 사실에서 예고된 것이기도 하다. 선지식들의 대중 설법은 수행체계 미비와 이끌어 줄 스승의 부재라는 오래된 화두를 해결하는 중요한 방편으로 인식되어 왔기 때문이다. 조계사 주지 지홍 스님은 "경허 선사 이후 수많은 선지식을 배출한 조계종이 새로운 선종을 펼치기 위해서는 제방 선지식들의 사후가 더욱 필요한 시점"이라며 "선원장 초청법회를 비롯한 많은 참선법회들이 간화선 중흥의 토대를 만들 것"이라고 말했다.

지면 안내	
2면	· 재가자 참선 붐
3면	· 문답점점이 뜬다
4면	· 대호 스님이 말하는 생활선
5면	· 미산 스님이 말하는 선수행 원리
7면	· 법문 듣고 단박깨치기
8면	· 자세 · 호흡법 · 화두참구법
9면	· 성본 스님이 말하는 좌선법
10·11면	· 위문관한 선사서
12면	· 무문관 수행
13면	· 경허·민공·함암 스님의 공부법
14면	· 효봉·동산·경봉 스님의 공부법
15면	· 금오·전강·성철 스님의 공부법

■ 간화선 중흥을 위한 선원장 초청법회 안내(조계사·현대불교 공동주최)

- **매주 일요일 오전 10시, 조계사 대웅전**
- **문의: 조계사 (02)732-2115, 현대불교신문사 (02)737-8881**

일	주최	주최자	주최처
4월 11일	지환 스님	조계종 기본선원장	선 수행의 요체
4월 18일	해국 스님	제주 남국선원장	머무는 곳마다 주인되어
4월 25일	현웅 스님	미 버클리룩조사 주지	진실되게 사는 법
5월 2일	도현 스님	쌍계사 금당선원 선덕	한국 선의 세계화와
5월 9일	설경 스님	수덕사 수좌	생활선
			선-스스로 만드는 행복
			단박 깨침(돈오)이란 무엇인가

특별 취재팀
대표집필 : 김재경 차장
사진 : 박재완 · 고영배 기자